

方言과 국어교육

오창명(제주대)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방언과 국어 교육
3. 문학과 방언
4.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제주 언어·문학과 국어교육>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하는 학술대회의 한 부분인 “방언과 국어교육”이란 소주제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소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의 ‘국어교육에서 방언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한다. 좀더 줄이자면 ‘제주도의 학교 교육에서, 제주방언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주방언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나중 에까지 제주방언을 남아 있게 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 생각한다.¹⁾

1) 이 학술대회의 소주제로 “방언과 국어교육” 외에 “설화와 국어교육”, “민요와 국어교육”, “문학과 국어교육”이라는 주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언과 국어교육”에서는 문학작품에 반영된 방언 교육은 다루지 말고 언어학적인 측면만 다루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언은 실제 대화로 실현되는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구비문학을 통해서 실현되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널리있기도 하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음성언어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문자로 기록된 시와 소설, 전

이 글에서는 주로 대화에 쓰이는 제주방언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문학작품에 투영된 제주방언을 어떻게 읽고 쓰고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방언과 국어 교육²⁾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왔다. 곧 표준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방언을 거의 무시함으로써, 표준어는 좋은 것이고 방언은 나쁜 것이라는 그릇된 국어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러한 것에 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국어생활의 이상은 방언과 표준어를 둘 다 잘 알고 경우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고 국어 교육을 한다면 당연히 방언교육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국어교육의 목표는 너무나도 당연히 표준어는 물론 방언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방언사용자(二方言使用者)뿐만

설과 신화 등과 아울러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2) 대학의 국어교육에서 제주방언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은 제주대학교의 교양과목 중 하나였던 「제주방언의 이해」(주 2시간), 그리고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4학년의 「제주어특강」(주 3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강영봉 교수의 「제주의 언어 1」과 필자가 편집한 「제주방언의 이해」란 책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현장에서 채록한 대화언어, 민요, 무가, 설화, 속담 등을 부교재로 사용했다.

1997년에 탐라대학교의 국어교재인 「말과 글, 문화」(필자 편, 1997)에는 다음과 같은 장과 절이 있었다. ‘제3장 제주도의 언어와 문화. 1) 제주도의 말[언어], 2) 제주도의 구비문학, 3) 제주도의 민간신앙, 4) 한라산과 문학, 5)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4장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3) 마지막 테우리 4) 우리들의 조부님”, “제5장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3)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 4) 한라별곡”.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주한라대학의 국어교재인 「대학국어」(나우출판사, 1997)가 있었다. “Ⅱ. 언어와 문화. 4. 제주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 5. 제주어에 나타난 제주정신”, “Ⅲ. 고전의 이해. 1. 乙那神話의 文化傳統과 脫傳統. 3. 성님성님 시집살이 어떻게 됩디가? 4. 한의 독백, 시집살이 노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대학의 국어교육 위축으로, 요즘은 학부 과정에서 제주방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좌는 거의 없어졌다.

아니라 다방언사용자(多方言使用者)를 양성하는 것이 진정한 국어교육의 목표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어 공용화니, 영어 상용화니 하면서 영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말인 제주방언이나 국어는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언어의 측면에서 제주방언을 교육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리와 문자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은 대부분 유아원 또는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언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교육에서는 소리와 문자에 관한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것 같다. 사실 소리와 문자에 관한 교육은 언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는 제주방언으로 쓰여진 문학작품이다. 제주방언으로 쓰여진 시, 소설, 설화, 민요, 무가, 속담, 수수께끼 등이 그것들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소리에 관한 것과 문자에 관한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 우선 국어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국어, 곧 표준어의 경우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1988년 1월 19일(문교부 고시 제 88-2호)에 고시하여 1989년 3월부터 시행된 <표준 발음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

제 1 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자음과 모음

제 2 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ㄷ ㄷ ㄷ ㅅ ㅆ ㅇ ㅈ ㅊ ㅊ ㅋ ㅌ ㅍ ㅎ

제 3 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ㅓ,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가재[가저] 쨌어→쨌[쨌] 다치어→다쳐[다쳐]

다만 2. ‘예, 례’ 이외의 ‘궤’는 [궤]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계:집] 개폐[개폐/개폐] 開閉 혜택[혜:택/혜:택]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는 [ㄱ]로 발음한다.

찍어쓰기 획어 희망 유희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허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1988년 1월 19일(문교부 고시 제 88-1호)에 고시하여 1989년 3월부터 시행한 <한글 맞춤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장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

(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야)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쌍기역) ㄷ(쌍디귤) ㅂ(쌍비읍) ㅅ(쌍시옷) ㅈ(쌍지읒)

ㅈ(애) ㅊ(애) ㅋ(예) ㆁ(예) ㅑ(와) ㅓ(왜) ㅕ(외) ㅗ(위) ㅛ(웨)

ㅗ(위) ㅕ(외)

2.1 제주방언의 모음

제주방언은 소리와 문자에서 표준어나 공통어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단모음 '으'와 이중모음 '으'에 관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승녕(1956)에서는 제주방언의 단모음을 [a] 아, [o] 오, [ɔ] 으, [ə] 어, [u] 우, [ɯ] 으, [i] 이, [e] 에, [ɛ] 애, [y] 위 등 10개를 들었다.

현평효(1962)에서는 제주방언의 단모음을 ㅏ[a], ㅑ[e], ㅓ[o], ㅕ[u], ㅗ[ɯ], ㅛ[i], ㅜ[e], ㅠ[e] 등 9개를 들었다. 현평효(1964, 1971)에서는 앞의 9모음 체계와 7모음 체계(ㅏ[a], ㅑ[e], ㅓ[o], ㅕ[u], ㅗ[ɯ], ㅛ[i], ㅠ[e])가 원어민들(native speaker)의 연령층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특히 ㅜ[e]는 後舌半開母音이어서 발음하기에 가장 힘든 소리라고 했다.

정승철(1988, 1995)에서도 현평효와 마찬가지로, 노인층은 9모음 체계, 젊은층은 7모음 체계를 가지는데, 7모음 체계는 '으>오', '애>에'의 상승화를 겪은 것이라고 했다.

단모음 '으'의 발음은 제주방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확인된 것이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944)에서는 제주방언의 '으'가 음성학적으로 폐음 오[o]와 개음 어[e]의 중간에 위치하고 일본어 'オ'와 유사한데 그것보다 입술을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고 하였다.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42)에서는 제주방언 'ㄱ새'의 '으'는 [ɯ]로 표시하고, 舌面의 높이 및 樣態는 대개 [o]와 같지만 입술의 상태가 [o]와 다르다고 했다. 곧 [o]는 입술을 안쪽으로 좁히지만 이 모음은 바깥으로 벌린다고 했다.

이승녕(1956)에서는 'ㄱ새'(剪), 'ㄱ대'(藁) 등에서 '으'는 [ɔ]보다 원순성이 강하고, 'ㅎ-'(爲), 'ㅁ물' 등에서 '으'는 원순성이 약화되어 [ɔ]로 발음된다고 했다. 그래서 'ㄱ라서(言), ㄱ대(藁), ㄱ채(삼태기), ㄱ쟁이(호미), ㄱ랑비(細雨), ㄱ새(剪)' 등의 '으'는 [ɔ]에 [ɔ]를 더한 부호로 표시하였다.

현평효(1964, 1971)에서는 ‘·’ 소리가 後舌 뒤쪽에서 조음되는 것(‘f’의 後高音)이어서 가장 힘이 드는 소리라고 하면서, 小倉 박사와 河野 씨가 말하는 ‘·’가 변한 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고 15세기의 ‘·’음이 잔재하여 있는 소리(16세기 후반기 상태)라고 했다.

정승철(1995)에서는 문헌어를 통해 재구한 중앙어의 음운사에 기댄다면 원래 ‘·’는 ‘ㄱ’과 원순적으로 대립하는 후설중모음이었는 데, ‘·’가 ‘ㄱ’에 밀려 후설저모음화하게 되었다(결국 ‘어’의 후설화)고 했다.

제주도방언의 ‘으’를 언어학적으로 확인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나타낼 때는 ‘·’(으)로 나타냈다. 이후 ‘·’는 오늘날까지 제주도방언 ‘·’를 나타내는 문자로 정착하였다. 그런데 노년층이나 젊은층에서 이것을 문자로서 인식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표준어 ‘모자반’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을 ‘뎡’ 또는 ‘뎡음’, ‘뎡망’ 등으로 쓰지 못하고, ‘뎡’, ‘뎡망’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한 발음은 노년층의 경우 어렵게 않게 실현하는데 젊은층의 경우는 대부분 ‘오’로 실현시킨다.

제주도방언의 소리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중모음 ‘ㄴ’(으)의 발음과 표기이다.

이승녕(1956)에서는 [yɔ]의 음가가 문자 뒤에 숨어서 발음되는데, 실학시대의 ‘ㄴ’자설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여망지다(뚝뚝하다. 賢明하다), 여섯(六), 여덟(八), 역흔다(惺惺하다. 야무지다), 여석(奴 ‘男’의 비칭)’ 등을 들었다. 그리고 ‘으똥’의 ‘으’는 제주도방언에서 의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방언에서는 ‘으’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용후(1960, 1988)에서 “ㄴ음은 l와 ·가 합하여진 겹홀소리이므로 ·음이 남아있는 제주도에만 남아있다. ㄴ음을 가진 말은 그리 많지 아니하나 빈도는 높은 말들이다. 으삿>여섯, 으답>여덟, 으나문>열아문, 으든>여든, 으름>여름, 올메>열매, 올다>열다, 읊다>여물다, 읍다>역다, 으망지다>뚝뚝하다, 읊>엮” 등을 들고 낱말 첫소리에만 있다고 했다.

현평효(1962)에서는 모음 ‘·’에 ‘l’ 모음이 선행한 소리는 ‘ㄴ’[jɔ]로

표기했고, (1971)에서는 ‘니’와 ‘기’를 중모음 [we]와 [wi]로 발음한다고 했다.

이쯤에서 제주도방언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우선 1995년 제주방언연구회에서 만든 <제주어표기법>의 일부를 보자.

■ 제주어 표기법

제1장 총 칙

- 제1항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제주어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

제2장 자 모

- 제3항 제주어 표기에 쓰일 글자는 한글 스물 녀자 외에 ‘·’와 ‘ㅿ’ 두 자를 추가하되, ‘ㅣ(이)’ 다음에 배열하고, 이름은 ‘으’, ‘으’로 정한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구개음화

- 제4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곧이	고지	걸히다	거치다
뚝받이	뚝바지	굳히다	구치다
미닫이	미다지	닫히다	다치다
몹이	몹지	묻히다	무치다
해돋이	해도지	받히다	바치다

다만, 다음 말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ㄱ치·ㄱ찌 부치다·부찌다 술부치 췌부치 일가부치 피부치

제5항 ‘기’이 ‘이’나 ‘자, 카’와 결합될 적에 ‘지’으로, ‘흥’이 ‘이’나 ‘자, 카, 교, ㅍ’와 결합될 적에 ‘시’으로 소리 나는 것은 각각 ‘기’과 함께 ‘지’, ‘흥’과 함께 ‘시’으로도 적는다.

겨를·즈를·저를	겨우·제우	겨을·저을·저슬
결단·절단	결박·절박	겹바지·접바지
기동·지동	기름·지름	기와·지에
기침·지침	길·질	길마·질메
향교·상교	향냥·상냥	허·세
현금·선금	혈기·설기	형·성
효조·소조	흉년·승년	힘·심
가을이다·자을이다	견디다·즌디다·전디다	

제2절 모 음

제6항 ‘:’는 ‘기’나 ‘그’ 비슷하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드리(橋)	도리·더리	경훈디	경혼디·경헌디
달(月)	돌·덜	ㄱ지다	고지다·거지다
므슬(里)	모슬·머슬	놀다	놀다·널다
몰(馬)	물·멀	일흐다	일호다·일허다
브름(風)	보름·버름	흐김	호꿈·허꿈
술(膚)	술·설	훈저	혼저·헌저
팻(小豆)	팻·펫	흙치	흙치·헝치

제7항 ‘:’는 ‘교’나 ‘자·카’ 비슷하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으든	요든·야든	으망지다	요망지다·야망지다

으뜸	요답·야답	옥다	옥다·역다
으삿	요삿·야삿	옥삭다	옥삭다·역삭다
으쌔	요쌔·야쌔	옥옥하다	옥옥하다·역역하다
윤가슴	윤가슴·얏가슴	읍다	읍다·얏다

제8항 ‘ㅂ’은 ‘ㄱ’ 비슷하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ㅂ’로 적는다.

개(犬)	개(浦邊)	내(呑)	내(川)
내음살(臭)	너댓(四五)	대(竹)	대낮(晝)
대으삿(五六)	대초(棗)	때(時)	매(鷹)
매(鞭)	물매(鞭)	새(茅)	새달(一月)
새백(晨)	새스방(新郎)	첫새끼(雛)	해(多)
개다(晴)	내밀다(突出)	내돌다(疾走)	새기다(刻)
새다(曙)	새움하다(嫉妬)	애쓰다(勞心)	재우다(就寢)
포개다(重疊)	해롭다(害-)	화내다(火-)	
개별(個別)	개판(蓋板)	대강(大綱)	채권(債權)

제9항 ‘ㄴ’음은 ‘ㄱ’소리로 변해졌으므로 ‘ㄱ’로 적는다.

내(坵)	배(腹·梨·船)	세(間)	생각(思)
재(灰)	해(太陽)		
개량(改良)	개회(開會)	네일(來日)	대대(代代)
매일(每日)	역수(額數)	제간(才幹)	제물(財物)
채소(菜蔬)	책(冊)	태(胎)	태만(怠慢)
해동(海東)	행실(行實)		
계든다(覺)	대하다(對-)	베다(姪)	베우다(學)
세다(漏)	캐다(採)	페다(마구 때림)	

제10항 ‘며, 벼, 펴’의 ‘ㅂ’은 ‘ㄱ’ 또는 ‘ㄴ’로도 소리 나므로 ‘ㅂ’와 함께 ‘ㄱ, ㄴ’로 적는다.

면장·몐장·민장(面長)	면도·몐도·민도(面刀)
명·몐·밍(命)	병·벵·빙(病)

병·벙·빙(瓶) 병·벙·빙(餅)
 편지·펜지·핀지(便紙)

제11항 ‘니’는 이중모음 ‘게’로 소리 나서 단모음으로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게’로 적는다.

궤기(魚·肉)	궤한(怪漢)	네웨(內外)	웨물(賂物)
웨염(腦炎)	웨(升)	웨(牛)	웨(鐵)
웨가(外家)	웨(罪)	웨소(最小)	웨직(退職)
웨의(會議)	웨다(爲)		

제12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니(齒)	니	고희(古稀)	고히
니(蝨)	니	논의(論議)	논이
닐리리	닐리리	본의(本義)	본이
디다	디다	예의(禮儀)	예이
띄어쓰기	띄어쓰기	의심(疑心)	이심
무니(紋)	무니	주의(注意)	주이
씨어	씨어	중의(中衣)	중이
티어	티어	한의(漢醫)	한이
희끗희끗	희끗희끗	희롱(戲弄)	히롱
희다(白)	히다	희망(希望)	히망

이 <제주어표기법>은 당시 현평효 선생, 김영돈 선생, 강영봉 선생, 필자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인데, 공식적인 표기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표기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전사법’으로 바꾸어야 함은 물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일부는 수공이 가지만 일부는 수공할 수가 없다. 특히 학교교육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약속에 의해 만

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글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틀을 가진 표기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사법'이라 하든가 '표기법'이라 하면 될 것이다.

2.2 제주방언의 자음

제주방언의 자음체계는 다른 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방언(또는 표준어)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평효(1982)에서는 '불히, 불이'(根, 뿌리), '멀위, 멀이'(山葡萄, 머루) 등에 보이는 'ㅇ'을 유성후두음 'ㅎ'으로 보고, 자음 음소수를 스물(20개)로 파악하였다.

양순파열음 ㅂ ㅍ ㅃ, 설단파열음 ㄴ ㄷ ㄸ, 설근파열음 ㄱ ㅋ ㆁ,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 ㅅ ㅆ ㅇ, 양순비음 ㅁ, 설단비음 ㄴ, 설근비음 ㅇ, 설전음 ㄹ

그 외의 경우는 표준어와 같이 19개의 자음을 인정하고 있다.

3. 문학과 방언

문학작품에 관한 올바른 해독과 이해는 상호 필연성과 상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에 관한 국어학적인 연구가 국어학으로부터, 그리고 국어학적 연구가 문학 연구로부터 시작되듯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문학작품의 올바른 이해와 해독을 위해 국어학적 연구와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로 떨어진 채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속의 방언 연구나 이해는 국어학과 국문학 사이에 놓인 공백을 메우는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1 시와 방언

다음은 김광협 시인의 「말이 늦쓰랑 안 되키여」이다.

말께나 흐는 사름
 글께나 쓰는 사름
 이레 오라 저레 가라
 오랜 흐민 오곡
 가렌 흐민 가곡
 영도 흐곡 정도 흐당도
 말이 하난 안 되키여
 말이 너미 늦쓰랑 안 되키여
 또 글이 늦쓰랑 안 되키여
 영 ㄱ락 정 ㄱ락
 이레 심어당 뜨리곡
 저레 심어당 가두곡
 흐당 흐당도 버천
 이런 놉덜 이시넨 흐명
 보낸 디가 제주 땅이여
 와분 디가 제주 땅이여
 제주 땅일 왕 보나네
 송우암도 왕 있곡
 김추사도 왕 있곡
 말께나 흐는 사름
 글께나 쓰는 사름
 돈닥덜 왕 이서라
 제주 땅엘 왕 이서라.

.....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1984)

이 시를 통해서 제주방언 어휘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흐다(하다) / 사름(사람) / 이레(이리) / 저레(저리) / -렌(라고) / -민(면) / -곡

(반복) / 영(이렇게) / 정(저렇게) / -당(다가) / 하(다) / 하(다) / 하(다) / -난(니까) / 뉘(되)다 /
 / -키여(-크+·이어/·이여; -겠어·-겠) / 너미(너무) / 느(쓸)다(느(쓸)다·놀(쓰)다;
 날(서)다) / 굴(대)굴(다) / 말(하)다 / -악(반복) / 심(대)붙(잡)다 / -어(당·어)다(가) / 딱(리)
 대(때)리(다) / 가(두)다 / 버(치)대(벽)차(다) / 덜(들) / 이(시)다·잇(대)있(다) / 뉘(-느)냐
 고) / -명(면)서) / 디(곳)·갓) / 이(여/·이)어·이(다) / 일(엘·에)를) / -양(아)서) / 난(에)
 (니까) / 문(단)전(부) / 문(단)덜(전(부), 모(두)) / 이(서)라·잇(어)래(있)더(라)

표준어 어휘와 같이 쓰이는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말 / 깨(나)조사, '일부 명사에 붙어' 눈(꼴)사(남)다는 투로, '어느 정도는'의 뜻
 을 나타냄) / 글 / -느(관형사형어미) / 쓰(다) / 오(다) / -라 / 가(다) / 도(조사) / 또
 / 말 / 이(조사) / 안(부)정(부)사) / 가(두)다 / -느(관형사형어미) / 이(런/·이)러(한) / 놈
 / 보(내)다 / 가(조사) / 제주 / 땅 / 보(대)동(사)

제주방언으로 시를 쓸 때 기본적인 원칙(가령 방언 표기법 등)을 지켜야
 효과적인 시가 된다. 예를 들면, '있꼭'은 '잇꼭'으로, '눗쓰랑'은 '눗쓸양'으
 로, '정 ㄱ락'은 '정 굴악' 등으로 형태를 밝혀적으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 하난...' '말이 너미 눗쓰랑'과 같이, '명사+조사' 구성은
 표준어와 같이 명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적으면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김출근의 동시 「우영팔 호박」이다.

울 밑을 발발 기며
 함박손 벌려
 해님의 따스 사랑
 해종일 물레질 삐걱삐걱.

깜박 졸린 초승달
 어스름에 아빠 오실 동구밖
 아이 손에 반디 콩지불 모아

호박꽃 초롱 반짝반짝.

꽃축에도 못 낀다
입방아 찧지만
벌 나비 떼지어
꽃분 도둑질해도
마냥 함박웃음 허, 허, 허.

해와 달의 끈끈한 정
마디 마디 피어 올라

우영팔엔 해아기
초가지붕엔 달아기 보듬어
우리 아기 잘 자라 자랑 자랑.

..... 『제주문학전집』VI(아동문학선집, 1998)

위 동시는 몇 개의 어휘를 제주방언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영팔'은 '우영팻'으로 써야 한다. '우영'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텃밭' 정도에 대응하는 말이다. '마디 마디'는 '마디마디'(모든 마디)로 써야 하는 복합명사다. '마디마디에 새싹이 움트다'와 같이 써야 하는 것이다. '함박손', '피어 올라', '해종일', '동구밖' 등은 '함박 손', '피어올라', '해 종일'(하루 종일, 종일), '동구 밖' 등으로 띄어 써야 한다. '피어오르다'가 하나의 단어(장작불이 피어오르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다.)이고 '해종일', '동구밖' 등은 두 개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아기'가 접미사가 아닌 한 '해 아기', '달 아기' 등으로 써야 한다. 이를 복합어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콩지'도 '새의 콩무늬에 달린 것'을 이르므로 '반디 콩지불'은 어색하다. 그냥 '빈덧불'이면 되는 것이다. '자랑 자랑'은 '자랑자랑'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아기를 재우며 조용히 노래처럼 부르는 소리'인 표준어 '자장자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라'도 표준어 '자거라'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이다. '초가(草家)'는 표준어에도 쓰이고 제주방언에서도 일반화된 말이지만, 방언적인 뉘앙스가 더 나는 '초집'을 쓰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제주방언으로 시를 표현하든 동시를 표현하든 적어도 한글맞춤법을 준수하거나, 어느 정도 제주방언 표기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냥 말로 하듯 마음대로 표현하면 글이 혼란스럽거나 어색해짐은 물론 뜻이 통하지 않게 된다.

3.2 소설과 방언

다음은 제주방언으로 쓰여진 소설의 일부분들이다.

① “이 어른아, 하다하다 저승길 떠나는데 맹물 한 대접 노갓돈 한 푼 없다고 구승허지 말아 줘서. 어찌하여 나의 저승 올래는 감저 구멍이나고 승보지 말아 줘서. 이 수련동 마을이, 내 처자식덜과 정 석으곡 시름 석으명 살던 땅 인가 해서 돌아볼 생각 말앙 밤 하늘에 벨이 되곡 비구름 다스리는 해가 되곡 달이 되영 이 어린 것들이나 보살펴 줘서. ……”

..... 고시홍의 「戒命의 도시」 후반부

② “시국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니, 어디 다리 뻗고 살아지크라.”

“아니, 면장이사 밍다고 허지만 그 식솔들이사 무슨 죄가 있어. 열 살도 안된 아이들까지 죽여시니.”

“지서 순사를, 아니 철창으로 죽이고서 다시 석유를 뿌려 불을 태웠젠. 이 건 원 사람들이 어떻게난 그렇게 독해져신고”

“해방이 되어서 살길이 났젠 하더니 이 모양이나, 어떻게 되젠 험신디?”

..... 현길언의 「未明·列傳·11」의 일부

③ “아르바이트건 뭐건 간에, 누님, 대관절 영영 여기에 눌러 살 생각이우 파?”

진옥이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몰아쉬다.

“집이 안팔리는데 어떻(어떻게) 하느냐고 집만 팔리면사 당장이라도 떠나자.”

“좀 밀지더라도 팔아버립서. 천 날 기다려봐야 제 값 받기는 영 글렀수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집 매형 목숨과 바꾼 집이여. 당최 안될 소리, 30

만원이나 밑저 팔란 말가?”

“하여튼 누님, 아침 시간이 늦어 여러 말 못하쿠다만, 순주도 이젠 제 정신 차렸으니 내달 안으로 고향 내려갈 작정합쥬. 타관 객지에서 이 무슨 고생이 우파? 객지에서 고생하느니 같은 값이면 고향에서 하는 게 낫지. 이따 저녁때 가족회의를 열어 귀향대책을 세우기로 합쥬.”

..... 현기영의 「歸還船」의 일부

소설을 쓰는 데에 제주방언을 활용하는 작가는 대부분 제주 출신 작가들이다. 그런데 제주방언을 글로 표현할 때 말로 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말을 완벽하게 글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글로 나타낼 때는 기본적인 글자와 그 운용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어를 쓸 때는 한글맞춤법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제주방언을 표현할 때는 한글맞춤법은 물론 제주어표기법에 어긋난 표기가 너무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아쉽다.

①의 경우에, ‘구승허지 말아 줍서, 내 처자식덜과 정 섞으곡 시름 섞으멍’ 등과 같이, 제주사람이 하는 대화문임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벨이 되곡, 해가 되곡, 달이 되영’의 경우, ‘벨’의 제주방언으로 ‘벨’을 쓰면서도 ‘해’의 제주방언 ‘헤’나 ‘달’의 제주방언 ‘덜’을 쓰지 못한 것, ‘되곡’을 ‘뉘곡’으로 쓰지 못한 것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래’도 ‘올레’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②의 경우도, ‘살이지크라, 어떻허난 그렇게 독해져신고’와 같이 제주방언으로 대화문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무슨 죄가 있어’는 완벽한 표준어여서 ‘무신(또는 미신) 췌가 이서(또는 잇어)’로 표현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불을 태웠젠, 살길이 낫젠 하더니’ 등도 ‘불을 태웠젠, 살길이 낫젠 허더니(또는 허더니)’ 등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젠 험신디?’의 ‘험신디’라는 표기는 다른 소설가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으로, 무척 반가운 표기다. 왜냐하면 ‘하다[爲]의 제주방언은 ‘허다’ 또는 ‘허다’로 실현되는데, 이의 활용형은 ‘허염신디, 험신디’ 등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③의 경우도, '생각이우파, 영 글렀수다, 고생이우파' 등과 같이 제주 방언으로 하는 대화문이어서 정감이 간다. 그러나 '팔리는다, 팔아버립서'에 보이는 '팔-'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은 '폴-'이다. 그러므로 '폴리는다, 폴아버립서' 등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못하쿠다만, 작정합주' 등도 '못 흐쿠다(또는 못 허쿠다), 작정 흡주(또는 작정협주) 등으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3 동화와 방언

다음은 김봉임의 동화 「아기 노루와 경찰관」의 일부분이다.

“(전략)

드디어 할머니가 낫과 멜빵을 들고 밭머리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콩이 꺾이어 얼기설기 뒤엎힌 콩밭을 보니 기가 막히고 정말이지 와르르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요 노릇을 어떡허민(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고”

할머니는 안절부절못하여 길바닥에 텃석 주저앉아 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서둘러 콩밭으로 달려들더니 콩밭 한가운데 서 있는 소년의 옷소매를 꼭 부여잡고 야단쳤습니다.

“어서 콩밭 서러내라(변상해라). 정찰(경찰서)로 걸라(가자).”

소년은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렸다.

“미시겐 고랍시(뭐라고 하니) 거짓말 말라(거짓말 마라). 노리 심젠 들어간 다울려 댁겨두연(노루 잡으러 들어가서 쫓아다녀 두고서) 호난(그런데) 노린 심지도 못호명(노루는 잡지도 못하면서) 콩밭만 구쳐 노아시난(어서 서러내라(콩밭만 망쳐놓았으니) 어서 변상해라)

(후략)”

..... 『제주문학선집』VI(아동문학선집, 1998)

제주 출신 작가가 쓴, 어린이를 위한 동화의 일부이다. 제주 할머니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어색한 부분들이 많다. '어떡허민,

좋고, 노리 심젠 들어간 다올려 댕겨두언' 등은 제대로 표현했지만, '콩밭', '서러내라', '고랍시', '호난', '구쳐', '노아시난' 등은 표준어를 생각해서 쓰거나 지나치게 소리 나는대로 쓴 것이다. '콩밭, 설어내다, 곶암시, 호난·허난, 곶혀, 놓아시난' 정도로 써야 한다.

4. 마무리

최근에 국어학자들의 입에서 '현대판 이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두는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던 시대에 한자를 빌어 불완전하게나마 우리말을 표현했던 것이다. 형식은 대개 한문에 우리말을 표현한 이두로 토를 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판 이두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적불명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우리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물론 학교교육에서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적불명의 말보다 차라리 우리 선조가 썼던 고유어를 살려 쓰자. 그러자면 제대로 된 방언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된 방언사전이 나와야 한다. 문학방언 사전도 곧 기획되어 나올 것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우리말을 제대로 살려 쓰도록 하자. 그리고 제대로 살려 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자.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될 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움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 박용후(1961ㄱ). 『제주방언연구(자료편)』, 등사판(1988 재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박용후(1961ㄴ). 『제주방언연구(고찰편)』, 등사판(1988 재판, 과학사)
- 오창명(1995). “제주도방언 조사의 성과와 문제점”. 『백록어문』 11집, 백록어문학회.
- 오창명(2001). “제주방언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백록어문』 17집, 백록어문학회.
- 이기문·이상규 외(2001). 『문학과 방언』, 도서출판 역락.
- 이승녕(1956).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호.
-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집, 서울대.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1985 재판, 태학사)
- 현평효(1964). “제주도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집, 한국언어문학회.
- 현평효(1971). “제주도 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호, 제주도교육청.(1985에 수록)
- 현평효(1982). “제주도 방언 개관”. 『제주도지(하권)』, 제주도.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
- 河野六郎(1942). 『朝鮮方言學試攷-「缺」語考』, 東都書籍.